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на сайт www.koreans.kz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в инстаграм -Коре ильбо-

49 (1847) 23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우리는 명년을 지역의 해로 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세 웹툰에 대한 것이었다. 모바일 전 킵니다. 그래서 웹툰아카데미

남경자

교육

카자흐국립대 일본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은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특히 극동학과 교수교사 및 학생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해였다. 우선 국제레이징 통신사 QS WUR (영국) 연구결과에 따라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가 200개의 톱 대학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카자흐국립대가 세계의 가장 우수한 800개의 대학중에서 150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저물어가는 해의 또 중요한 사건은 금년이 카자흐스탄에서 일본학과 설립된지 30주년이 된 것이다. 30년전 즉 1992년에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극동학과 동방학부에 일어 및 문학과과 열렸다. 아.이.까말지노브와 하.오카와 여사가 일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오카와여사는 <카자흐어-일어> 첫 회화집 필자이다. 1996년에 일본학과를 필한 첫 졸업생들이 현재 우리 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2003년 여름에 중어와 일어로 이루어졌던 극동학과 나라 강좌가 개편된 결과 일본철학 강좌가 형성되어 2005년에 일본학 강좌로 개칭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에 헬싱키 대학 고승무 교수와 INALCO (

파라) 대학 문학 박사김필영의 노력에 의해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와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철학 강좌가 처음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결과 2011년에 카즈누 모든 강좌들의 재구조화 결과 한국학 강좌와 일본학 강좌가 연합되어 한국학 및 일본학 강좌로 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아블라이한 명칭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 엘.엔.구밀료브 명칭 유라시아 국립대가 일어, 일본 문화, 정치, 역사 지식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년간에 공화국의 일부 학교와 김나시아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 일어를 첨부적 과목(선택학과)으로 넣기도 한다. 나시르바예브명제학교와 <도스타르> 학교가 그런 교육기관들이다. 그 외에 일어를 배우고자하는 자는 카자흐스탄-일본 인적 자원발전센터에서 배울 수 있다. 2002년에 창립된 이 센터는 일본 전문가들의 직접적 참가에 TheJapanFoundation <일본재단> 국제방법론에 따라 공식적으로 교육시키는 유일한 기관이다. 1998년에 카자흐스탄 일어교

사 자원회화 (KazJLTA)가 조성되었다.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아블라이한명칭 카자흐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 엘.엔.구밀료부명칭 유라시아국립대, 카자흐스탄-일본센터, 주카자흐스탄 일본대사관 일군들과 교사가 협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

어교육 발전에 협조하며 공화국에 일본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사명이다.

극동강좌 테마에 대해 말하면서 공화국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일본학과가 카자흐스탄에서 일본학과와 자

적 센터로 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강좌는 국제협조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학과가 1993년부터 주 카자흐스탄 일본대사관과 상시적으로 연계를 맺어오며 1995년부터 국제일본재단과 협조한다. 또한 일본학과가 꾸크바, 와세다 종합대학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 카자흐스탄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연수를 한다.

지난 11년간에 극동 강좌에서는 한국학 교수들과 일본학 교사가 이 손을 맞잡고 화목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강좌에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학과 대학생들은 각이한 행사에 서로 참가하며 경험도 나눈다.

지난 30년간에 적지 않은 일을 해 놓았다. 교과서, 참고서, 일본어 시전을 작성하며 교수방법론을 완성하며 일본사회층, 언어와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카자흐스탄과 일본간 국제협조 발전에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수행할 중요한 과업이다.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극동학과 수석교원을 제.아쉬노바, 게.타자베코바

